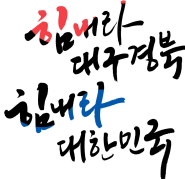

 금융위원회		<div>보도자료</div>			
 금융감독원					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손 성 은(02-2100-2591)		담 당 자	박 경 덕 사무관 (02-2100-2592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593)	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이 인 옥(02-2100-2520)			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 김 영 석 사무관 (02-2100-2592)	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박 상 원(02-3145-8200)			장 항 필 팀 장 (02-3145-8204)	

## 제 목 :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」 개정안 의결

### 1 개 요

- 금융위원회는 '20.4.29(수) 제8차 정례회의에서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」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\*하기로 하였습니다.

\* 개정안 사전예고(3.18~4.7) → 행정지도 심의위(4.17~4.23) → 금융위 의결(4.29)

- 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6개 금융그룹\*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\*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

### 2 추진 경과

-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는 국제적 감독규범 체계로서 우리정부는 '18년부터 국정과제\*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※ 국정과제 24-4

#### ※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도입 필요성

- (1)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 (예: '99년 Joint Forum 금융그룹감독원칙)
  - IMF는 '13년과 '20년,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, 감독 강화 촉구
- (2) 지주금융그룹과 같이 非지주 금융그룹에도 그룹차원 감독 실시로 사각지대 해소
  -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(예: '13년 동양사태)

- 금융위원회는 '18.7.2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금융그룹\*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운영\*\*해 왔습니다.

\* 당초 현행 6개 + 롯데를 포함한 7개 그룹을 지정하였으나, 롯데는 19.12월 제외

\*\* '19.7.2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1년 연장

-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추진\* 중이며, 法 제정 전에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이 필요합니다.

\* (20대 국회) 박선숙 의원안('18.6월), 이학영 의원안('18.11월) 정무위 계류 중

#### ◆ [참고] 현행 「모범규준」 주요내용

- ① (감독대상 지정)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\*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

\* 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둘 이상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
- ② (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)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,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

-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

- ③ (금융그룹 건전성 관리)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·집중위험,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·감독

### 3 | 개정안 주요 내용(☞참고1)

- 개정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, 금융연구기관 합동 세미나('20.1.29), CEO간담회('20.2.24)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.

- 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- ②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였습니다.

- ③ 특히, 이번 모범규준(부칙) 개정으로 '20.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\*될 예정입니다.

\* '19년말 기준(연간공시), '20.1분기 및 '20.2분기 기준(분기공시) 공시 예정

#### ◆ [참고] 「모범규준」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견반영 사항

※ 주요 제도개선 사항 (※20.2.24 「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」)

- ① 현행 자본규제만으로는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등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요소 관리·감독에 한계 → **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**(☞참고2)
- ② 공시 유예에 따른 실익은 적은 반면, 시장의 평가 기능을 위한 그룹차원의 정보제공 요구는 증대 → **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 시행**(☞참고3)

※ 금융그룹 주요 건의 및 반영사항

- ① 그룹위험을 집중·전이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의 중복 소지,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 → 그룹위험평가에 **다양한 위험요인 반영**
- ②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적정성 산정시 소재지국의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규제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→ **국내 유사업종에 대한 기준 준용가능**
- ③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비상근무 등에 따른 프로세스지연으로 금융그룹 공시 최초 실시시기 조정 건의('6월중 실시'로 사전예고) → **9월부터 실시**

## 4

### 향후일정 및 추진계획

- 금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'20.5.1일부터 '21.4.30일까지 1년간 연장\*되며,

\* '20.5.1일 모범규준 연장시행 및 감독대상 지정을 해당 금융그룹에 통지 예정

-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'19년말 ~ '20.2분기 기준으로 '20.9월말 경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'20.4.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(IMF)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(FSAP) 권고\*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,

- 필요시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」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◆ 비지주금융그룹 감독 관련 IMF FSAP 평가·권고 내용(☞참고4)

① (평가)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

- 비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그룹과 같은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·규제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데도 한계

② (금융그룹 측면 권고)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, 그룹소유 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,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필요

③ (감독당국 측면 권고) 금융위·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

- 非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,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 그룹감독을 강화·확대하고, 감독수단을 정교화 할 필요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금융그룹 감독대상 : 여수신 · 보험 · 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(단,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)  
\* 現 감독대상 :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 6개 금융그룹
- 대표회사 : 금융회사의 출자관계, 자산·자본총액 및 소유·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
- 그룹위험 :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(전이위험),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(집중위험)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차원의 고유한 위험
- 내부통제 :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,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

- 참고 1. 모범규준 개정안 주요내용  
2.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내용  
3. 금융그룹 공시 주요내용  
4. 금융그룹감독 관련 IMF 주요 평가·권고사항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## [1]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관련

### [1]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(안 별표3)

- (현행) 금융부문 전체 「적격자본(손실흡수능력)」이 「필요자본(업권별 최소 요구자본 합계액)」 이상이 되도록 관리

- 모범규준에 따라 ①중복자본 차감, ②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구분·측정\*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 후 내부 모니터링 중

\* 필요자본 산정시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최소요구자본과 합산

- (개정) 금융그룹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이상으로 유지하되,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은 다양한 요소\*를 통해 그룹위험으로 단일화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별 정량화를 통해 필요자본에 반영

\* 집중·전이위험은 내부거래, 이해상충, 평판, 특정인 편중투자 등 다양한 위험요인 고려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자본합계 - 중복자본 차감)}}{\text{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 + (현행) 집중위험 + 전이위험 가산) (개정) 그룹위험 가산)}} \geq 100\%$$

### [2] 금융그룹 해외법인에 대한 필요자본 산정기준 합리화 (안 별표3)

- (현행)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령상 별도의 자본규제가 없는 경우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8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자본으로 요구

- (개정)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법령상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 유사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 기준 적용이 가능\*하도록 개정

\* 일본의 경우 복합금융그룹 자본규제시 별도 건전성 규제가 없는 회사에는 본국의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

## [2]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

### □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(안 제7조, 제8조, 별표1)

- (현행)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

\*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는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에 따라 규율 중

- (개정)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

-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반영한 「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」을 마련·준수\*토록 함

\* 예) 금융그룹 차원의 이해상충방지 정책, 임원 인사원칙 등

-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(내부통제협의회)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, 주요 활동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

## [3] 금융그룹 공시 도입

### □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 시행 (안 제18조, 별표 5, 부칙 제4조)

- (현행) 금융그룹은 모범기준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통해 그룹 위험요인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

- (개정) 시장·투자자의 평가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금년 9월부터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'19년말 기준부터 실시\*

\* 최초공시는 '19년말, '20.1분기, '20.2분기 기준으로 '20.9월말까지 실시

#### [4] 감독대상 지정 등 기타 개정사항

##### [1]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관련 자산요건 명확화 (안 제4조제1항)

- (현행) 금융그룹의 총자산 규모 산정시 외국소재 금융회사도 포함
  - 국내법인 규모가 미미하여도 해외법인 규모로 인해 감독대상 (총자산 5조원이상)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
- (개정)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산요건을 금융 그룹에 속하는 '국내' 금융회사들의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으로 명시

##### [2] 감독대상 제외 절차 구체화 (안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6항)

- (개정) 감독대상 제외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여, 제외사유 및 자료의 금융위 제출, 제외결과의 서면 통지 등을 명시

##### [3] 모범규준 적용시한 연장 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

- 모범규준의 적용 기간을 '20.5.1일부터 '21.4.30일까지로 1년 연장\*

\* 「금융규제운영규정」(§13③1호)에 따라, 관련법 제·개정 추진시 모범규준 지속연장 가능

## 1.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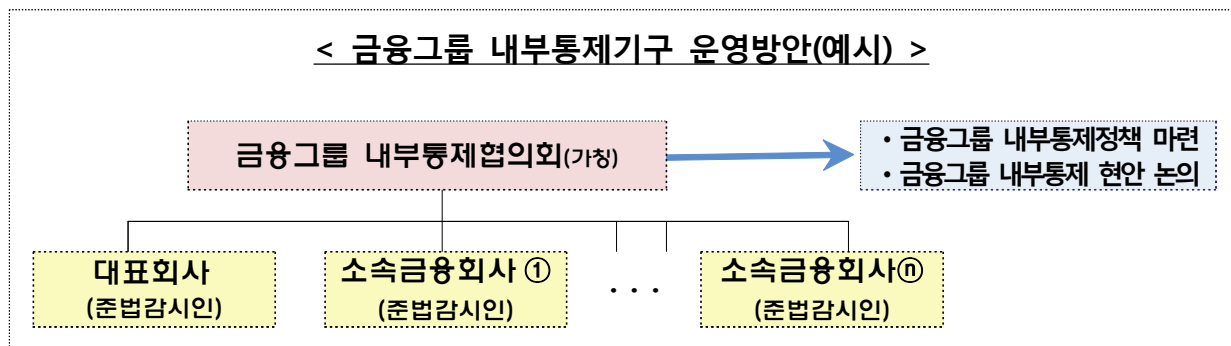
- (구성)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협의회\*를 신설하여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확립 추진

\* 협의회는 구체적인 형태, 운영방식은 각 금융그룹별로 자율적으로 결정

- (역할)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, 주요 활동 공유,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 수행

\*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도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 마련,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 등 실시

- (운영) 협의회는 주요 안전 및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·의결



## 2.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

-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스스로 마련하고, 이를 준수

<b>&lt;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주요사항(예시) &gt;</b>	
▪ 금융그룹의 법령준수윤리경영의무 선언	▪ 기준의 적용범위
▪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	▪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
▪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·역할	• 금융그룹의 불공정행위 방지
•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	•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
	• 계열사간 인사교류(겸직·이직 등) 원칙
	• 계열사간 공동업무 수행(내부거래 등)



## 1. 금융그룹 공시 개요

- ☐ (배경) 금융회사별 산재된 공시사항 등을 통합하여 그룹 재무 현황, 출자구조,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
- ☐ (근거) 「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」 제18조\* (항목·대상·방법·주기·감독 등)
  - \* 현재 부칙(1조)에서 공시 관련 사항은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고 있으나, 금번 모범규준 개정안(3.18. 금융위 사전예고)에서는 동 유예 조항 삭제
- ☐ (대상) 감독대상으로 지정\*된 복합금융그룹 소속 전체 금융회사
  - \* 현재 6개 금융그룹(삼성, 현대차, 미래에셋, 한화, 교보, DB)
- ☐ (방식) 대표회사가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·검증하여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
- ☐ (주기) 분기(시한: 3개월) 및 연간 공시(시한: 5개월 15일)로 구분
  - ※ 최초공시: '19년말 기준 연간공시 및 '20.1·2분기 기준 분기공시(9월말 限)

## 2. 금융그룹 공시 주요항목

- ☐ 복합금융그룹의 소유·지배구조,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,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 등 관련 8개 부문·25개 항목\*

\* 공정위 기업집단 공시, 금융업법에 따른 공시,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 등 참조

### < 주요 공시사항 (예시) >

소유·지배구조	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, 소속 금융회사 주주·출자·임원 현황 등
내부통제체계 <sup>①</sup>	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현황, 점검·관리 등 운영현황
위험관리체계	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, 위험한도 설정·관리 등 운영현황 등
자본적정성 <sup>②</sup>	금융그룹 적격자본, 필요자본 및 중복자본 내역
내부거래 등	금융그룹 내부거래 현황, 내부거래기준 및 관리·운영 현황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·신용공여 현황 등

① 내부통제체계 관련 공시는 '20년말까지 유예('21.6.15일 최초공시)

② 「그룹 자본적정성 비율」은 입법이후 공시

## 참고 4

## 금융그룹감독 관련 IMF 주요 평가·권고사항\*

※ IMF는 '14년 FSAP 평가에서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

### ① (평가) 非지주금융그룹(이하, 금융그룹)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\* 미비

\* 금융지주그룹에 대한 법적 감독권한 보유와 대비(본문)

- 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지주그룹을 적절히 감독
- 하지만, 非지주금융그룹은 시스템적 중요성이 있는(일부 그룹) 반면에 그룹차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,
  - 감독당국은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·규제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에도 한계\*

\* 감독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(wider group ; 금산결합그룹)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확보될 필요

### ② (금융그룹 측면 권고) 건전성 규제 강화, 그룹소유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, 금융그룹의 적절한 지배구조\* 구축 필요

\* 감독과 회생·정리계획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함(원문)

- 감독당국은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(potentially systemic groups)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대표회사 지정시 재량권\* 보유 필요

\* 그룹내 실질적으로 영향력있는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(해석)

### ③ (감독당국 측면 권고) 금융위·금감원은 강력한 그룹감독이 가능한 통합적 감독기구이지만 소규모 조직으로 그룹감독 중

-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,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감독을 강화·확대하고, 감독수단을 정교화할 필요